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 개발 예비연구

김경은¹⁾ 한유진²⁾

요약

본 연구는 영아기 부모상담에서 부모양육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척도문항을 구성하여 타당화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및 부모상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구성요인을 도출하여 111문항을 구성하였고, 내용타당도 검증 및 1차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69문항을 영아기 부모 371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계수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상호작용 양육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의 4개의 하위 구성요인, 32문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 척도 타당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부모상담에서 영아기 부모들의 양육역량을 점검하여 상담의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제어: 영아기 부모, 부모상담,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

I. 서론

영아기는 인생에서 발달의 초석으로 자아를 인식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부모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이명순·고여훈, 2016). 영아기 부모들은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인지적 인식은 높지만,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느끼며(장혜진·윤은주, 2014), 양육에 대한 자신이 없고, 소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초보양육자로 양육에 자신이 없는 영아기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 양육에 대한 고충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박소영·구본권, 2014). 실제적으로 자녀교육 상담 사이트에서 19-36개월 영아기 부

1)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

2)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모들이 가장 많은 양육 상담을 의뢰하였고(강정원·전선영, 2000), 상담내용은 자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양육상담, 상호작용방법으로(박소영·구본권, 2014), 자녀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조언,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 상담을 원하고 있다(강은주·김광웅, 2010). 부모상담의 과정은 부모의 의뢰사유와 객관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 상태의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여 상담목표 및 계획을 수립한다(Deborah Killough McGuire, Donald E. McGuire, 2008). 영아기 부모상담 임상현장에서 부모를 이해하고 상담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놀이평가, 양육스트레스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Parent Attitude Test Profile: PAT)를 활용되고 있다(허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 n.d.; 심리상담센터 헬로스마일, n.d.). 이는 영아기 부모상담에서 부모의 상호작용 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정서적 상태의 정보가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아기 부모에게 요구되는 '신뢰감을 주는 양육', '상호작용 대상', '발달에 적절한 자극을 제공', '자율성 발달의 조력', '영아기 부모 자신을 돌보는 것' 역할(김영희·고태순·김경원, 2012)과 연관된다. 부모에게 요구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개념인 부모양육역량(Goldstein, Freud, Solnit, 1973) 높을수록 자녀의 외현화 된 문제행동은 감소하고(권혜진·전숙영, 2015), 자녀와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지나(Woods, 2011), 양육역량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권위주의적 태도로 대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Sanders & Woolley, 2005). 부모양육역량은 자녀의 행동과 연결되기에 부모상담에서 중요하며, 부모상담을 통한 양육역량을 증진하는 유아기 부모 정서적 양육역량 프로그램 구성(김명하, 2013), 걸음마기 부모들의 양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성인놀이치료프로그램 개발(월경미, 2016), 영아기 부모양육역량강화를 위한 '아이사랑플래너', '찾아가는 심리학교' 등을 통해 부모 역량강화 및 역할을 증진하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n.d.; 월성 종합사회복지관, n.d.).

영아기 부모상담에서 요구되는 부모양육역량은 첫 번째, 부모의 '상호작용양육역량'으로(Herman, 1990) 영아기 부모상담에서 가장 많은 솔루션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었다(박소영·구본권, 2014). 영아기는 애착형성을 통한 신뢰감 형성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주는 시기이기에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합리적인 행동이 요구되기에(박선정, 2014)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양육역량은 '인지적 역량'으로, 영아기 부모의 중요한 요소인 자녀의 발달특성에 대한 양육의 이해, 자녀의 요구 및 한계설정, 기본 생활 습관 등 자녀 양육을 위한 이해능력을 말한다. 실제적으로 식습관, 배변훈련,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이 많은 시기이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박근주·조경옥·노성향 외, 2015). 세 번째, '양육효능감'역량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신뢰하는 정도(Bandura, 2006)로 '인지적 역량'에 대한 실행적 능력을 말한다. 영아기 부모들은 인식능력은 높지만

실행의 어려움을 겪어 양육스트레스 및 좌절 경험을 겪고 있기에(장혜진·윤은주, 2014) 부모상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네 번째, ‘정서적 역량’으로 부모 자신과 행복에 대한 이해, 스트레스 대처능력, 감정조절, 자기강점개발에 관련한 영역이다(김명하, 2013; Brian, Laurie, Melissa et al., 2014). 부모상담은 조언, 정보제공의 교육적 요인과, 부모자신, 부부간의 문제 상담의 치료적 요인의 목적을 갖는다(기채영, 2006; 유미숙, 1997). 영아기 부모상담에서 요구되는 부모양육역량의 상호작용양육역량, 인지적 역량은 교육적 요인, 양육효능감 역량, 정서적 역량은 치료적 요인의 목적을 갖는다. 부모와의 성공적 상담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역량인 부모의 역할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지식을 존중하고 개인으로서의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기에(Dee C. Ray, 2011) 부모의 양육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영아기 부모상담에서 요구되는 부모양육역량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적절한 상담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양육역량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기존의 부모양육역량을 점검하는 척도는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self-checklist”(장혜진·이정림·윤은주·김해인, 2013)와 유아기 어머니의 부모역량을 체크하기 위한 “부모 참 역량 척도”(정계숙·최은실, 2013)가 사용되고, 영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역량 self-checklist(이영순·고여훈, 2016)는 장혜진·이정림·윤은주 외(2013)의 척도를 영아기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걸쳐 사용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self-checklist(장혜진·이정림·윤은주 외, 2013)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 자신의 권리와 책임, 심리적 역량, 부모역량(이은경, 2013)에 관한 부분으로 부모의 전반적 역량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나 상담장면에서 요구되는 부모양육역량에 제약이 된다. 또한 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영유아 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 후 문항을 구성하여 48인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요인분석 및 신뢰도, 타당도 검증인 통계적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유아기 어머니의 부모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부모 참여량 척도(정계숙·최은실, 2013)는 유아기 부모를 대상의 척도로, 영아기 부모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육아 참여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이영·이미란·홍희영 외, 2015),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사회성격 능력을 형성하며(김영희, 1998),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주는(신하나, 2011) 중요한 요소임에도 아버지의 양육역량을 함께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임상 상담 현장에서 활용해 온 상호작용 놀이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적절한 평가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며(이영애, 2001), 부모양육태도(PAT)는 유아기 부모용으로 영아기 부모에게 적합하지 않고,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양육역량이 낮은

상관관계(김명하, 2013)가 있지만 양육역량의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부모상담에서 요구되는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부모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들에게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의 이론적, 경험적 개념의 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가설적 하위요인을 도출하여 문항을 작성하고자 한다.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및 예비연구 실시 후 수정·보완의 절차를 걸쳐 영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문항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요소 및 문항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에 부모상담에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의 자기보고식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여 타당화 검증을 위한 예비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상담에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상담에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의 측정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 전문가 조사 대상

〈표 1〉 아동전문가 조사 대상

내용		N(%)	내용		N(%)
학력	석사졸업	13(65)	전공	아동학 및 아동복지학	8(40)
	박사수료	3(15)		아동상담 및 심리학	12(60)
	박사졸업	4(20)		놀이치료사	12(60)
경력	5년-7년 미만	14(70)	자격증 (복수응답)	청소년 상담사	8(40)
	7년-10년 미만	3(15)		상담심리사	3(15)
	10년 이상	3(15)		상담심리 전문가	1(5)
				임상심리사	8(40)
			임상심리전문가	5(25)	

본 연구에서는 부모상담에서의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아기 부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부모상담 경험이 많은 아동전문가 20명을 연구참여자로 표집하였다. 아동전문가는 석사학위 졸업 후 공인된 아동상담 자격증이 있고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의 기준(유미숙, 2009)에 따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전문가 조사 대상은 놀이치료사가 12명, 전공은 아동상담 및 심리학 전공으로 석사 졸업이 13명으로 전문가 조사 대상은 <표 1>과 같다.

나. 내용타당도 대상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 초기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 1인과, 아동학 교수 1인, 아동학과 강사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실시하였고, 내용타당도 대상은 <표 2>와 같다.

<표 2> 내용 타당도 연구대상

	직업	경력	학력	전공	공인자격증
A	임상심리전문가	7-10년	석사졸업	심리학	임상심리전문가
B	아동학과 교수	10년 이상	박사졸업	아동학	놀이치료전문가
C	아동학과 강사	7-10년	박사졸업	아동학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다. 1차 예비조사 대상

이론적 고찰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11개의 초기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2차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및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수정한 뒤, 80문항의 예비문항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탁진국(2007)의 사전예비조사의 경우 20-30명 표집대상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토대로 영아기 부모 22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연구 대상은 <표 3>과 같다. 예비조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부 9명, 모 13명으로, 자녀의 성별은 남아 12명, 여아 10명이었다. 자녀 연령은 12~24개월 15명, 25-36개월 7명으로 나타났다.

라. 2차 예비조사 대상

탐색적 분석을 통해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만1세, 만2세 영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탐색적

요인분석은 문항의 4~5배 이상이 적절하여(탁진국, 2007), 영아기 부모 497명에게 설문을 진행하였고, 회수된 379명의 자료 중 미응답이 전체의 1/10이상이거나 모든 문항에 대해 하나의 점수로 표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36개월 이상의 연령의 응답을 제외하고 37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대상은 <표 3>과 같다. 서울지역 88명, 경기도 283명으로 경기도가 더 많았고, 부 177명, 모 194명으로 모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자녀들은 남아 193명, 여아 178명, 25-36개월 252명, 12-24개월 109명 순이었다.

<표 3> 예비조사 대상

(1차 N = 22, 2차 N = 371)

		1차 예비조사 N(%)	2차 예비조사 N(%)
지역	서울	22(100)	88(23.7)
	경기도	0(0)	283(76.3)
	계	22(100)	371(100)
부모성별	부	9(40.9)	177(47.7)
	모	13(59.1)	194(52.3)
	계	22(100)	371(100)
부모연령	30대	22(100)	275(74.1)
	40대	0(0)	90(24.3)
	기타	0(0)	6(1.6)
계		22(100)	371(100)
자녀성별	남	12(54.5)	193(52.0)
	여	10(45.5)	178(48.0)
	계	22(100)	371(100)
자녀연령	12-24개월	15(68.2)	109 (29.4)
	25-36개월	7(31.8)	262(70.6)
	계	22(100)	371(100)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가. 연구절차

부모상담에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 및 측정문항을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1단계,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을 도출하고자 부모양육역량에 관련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부모

양육역량의 구성요인들은 양육지식, 인지적 차원의 양육기술, 부모 개인에 대한 가치, 자아상, 양육 효능감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차원(Goldstein et al.,1973), 의사소통기술인 상호작용 양육역량(Herman,1990), 아동발달지식, 훈육기술, 부모 유능감 및 효능감(박현숙·구현영, 2010), 인지적 역량, 심리정서 역량, 자기돌봄 역량(Brian, Laurie, Melissa et al., 2014), 돌봄역량, 지원역량, 양육정보 역량(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등으로 구성된다. 선행연구를 통한 부모양육역량 구성요인은 <표 4>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영아기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아동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필요성 및 가설적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개방형 질문 및 반구조화 질문(예-‘부모의 양육역량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영유아의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장면에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을 탐색하기 위한 객관적인 도구를 알고 있는 대로 작성해주세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부모양육역량 중 상담 현장에서 필요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요인들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등)을 하였다.

〈표 4〉 부모양육역량 구성요인

	부모양육역량 구성요인	
Goldstein et al.(1973)	인지적 차원	양육지식, 양육기술
	정서적 차원	부모자기인식, 자기수용, 사회적 관계
Herman(1990)	인지적 양육역량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상호작용적 양육역량	의사소통 기술
	정서적 양육역량	부모 개인 내적 정서
정계숙·김정혜·김미정(2003) 부모참여역량 척도 중 양육역량 부분	자녀 발달특징, 욕구이해, 부모-자녀관계 이해, 건강한 부모관, 자녀 삶과 양육방향, 목표설정, 인내심 갖기, 민주적 양육, 반응적, 공감적 양육, 진로개발	
박현숙·구현모(2010)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훈육기술, 부모효능감	
Brian, Laurie, Melissa et al.(2014)	인지적 역량, 심리정서 역량, 자기돌봄 역량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돌봄역량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 자녀요구에 대한 민감한 반응, 돌봄에 대한 지식, 돌보는데 필요한 체력
	지원역량	일상에 대한 지원, 정서적, 심리적 지원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회관계 형성
	양육정보역량	양육관련 정보 접근성, 활용성, 충분성
김지현(2018) 유아기 부모역량 중 양육역량 부분	발달특성에 대한 자녀이해능력, 부모-자녀 소통능력 양육 효능감, 민주적 양육태도, 학습지원	

2단계,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 조사를 참고하여 가장 수요가 많은 연령 만12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기 부모 대상으로,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으로 ‘상호작용 양육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 4개의 가설적 구성요인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구성요인에 의거하여 상호작용 양육역량은 부모양육태도척도(천희영, 1992; 배기조, 2001; 유우영, 1998; 배문주, 2005), 부모 리더십 척도(윤지영,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이명란, 2013), 부모양육특성(Parenting Characteristic Test: PCT) (김정미, 2018)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자녀의 발달특성에 대한 인지적 역량 요인과 양육효능감 대해 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체크리스트(장혜진·이정림·윤은주 외, 2013), 김지수(2017)가 번안하여 사용한 영유아 양육효능감척도(Toddler Care Questionnaire: TCQ),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Efficacy Scale:PES) (조인경, 2004), 부모양육특성(PCT) (김정미, 2018) 을 토대로 영아 연령과 사회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는 내용들을 추출하였다. 부모의 정서적 역량은 양육효능감 척도(PES)(조인경, 2004), 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윤수영, 2002), 자기성찰척도(황주연, 2011), 탈중심화 척도(Experience Questionnaire: EQ) (김빛나, 2008), 영유아기 부모성찰척도(신호미, 2016)를 토대로 하위요인 정의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추출하여 111개의 초기문항을 구성하였다. 설정된 구성요인에 따른 초기문항 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구성요인에 따른 초기문항 구성

구성요인	문항 구성을 위한 선행척도	문항수
상호작용 양육역량	부모양육태도(배기조, 2001)	9문항
	부모양육태도(천희영, 1992)	12문항
	부모양육태도(배문주, 2005)	6문항
	부모 리더십 척도(윤지영, 2008)	3문항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이명란, 2013)	5문항
	부모양육특성(김정미, 2018)	10문항
	계	45문항
인지적 역량	부모역량 체크리스트(장혜진·이정림·윤은주 외, 2013)	7문항
	영유아 양육효능감(김지수, 2017)	8문항
	계	15문항
양육효능감	영유아 양육효능감(김지수, 2017)	14문항
	양육효능감(조인경, 2004)	7문항
	부모역량 체크리스트(장혜진·이정림·윤은주 외, 2013)	1문항
	부모양육특성 중 양육효능감 요인(김정미, 2018)	6문항
	계	28문항
정서적 역량	양육효능감(조인경, 2004)	2문항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윤수영, 2002)	7문항
	자기성찰척도(황주연, 2011)	4문항
	탈중심화 척도(김빛나, 2008)	6문항
	영유아기 부모성찰척도(신호미, 2016)	4문항
	계	23문항
	계	111문항

3단계, 구성된 111개의 문항을 1차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는 각 문항에 대한 표현 적절성과 이해도, 요인의 적절성을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임예슬·한유진, 2018), 문항 별 수정 칸도 제시하였다. 내용타당도는 Lynn(1986)의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통해 측정¹⁾하였다. 1차, 2차의 내용타당도를 통해 총 80개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4단계, 내용타당도 검증 후 수정·보완한 80문항을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2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차 예비조사에서는 문항의 이해도 및 실시시간에 대한 피드백 칸도 함께 제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 후 회수된 22부의 자료를 가지고 문항에 대한 반응분포를 분석하여 평균 3점 이하와 천정효과 및 극단적으로 작은 표준편차 .8이하를 가진 문항은 수정 및 삭제 기준(탁진국, 2007)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 69문항의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5단계, 서울, 경기도의 12개 어린이집 만1세-2세 영아기 부모 497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후 1차 개발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예비척도’를 통해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아기 부모 497명 중 37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 제외한 371명의 자료를 SPSS WIN 21.0 통계프로그램으로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하위요인 및 이를 측정하는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나. 자료수집방법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아동전문가 20인에게 연구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 후 연구동의를 얻어 개방형, 반구조화 된 Google 설문지를 통해 2018년 2월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요인과 초기문항을 개발하여 2018년 6월 1일~20일까지 메일 및 방문을 통해 2차례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내용타당도를 통해 수정·보완 절차를 거친 문항은 2018년 6월 30일~ 7월 7일까지 영아기 부모 22인을 대상으로 google 설문지를 통해 1차 예비조사를 실시 후 수정·보완된 예비척도를 2018년 7월 11일~20일 동안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12곳의 어린이집 만1세-2세반 부모 49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 측정내용의 ‘적합’, ‘매우적합’ 비율이 80% 이상 문항은 내용타당도 기준에 적절하며, 문항별 평정점수의 평균, CVI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문항은 삭제하고, 평균, CVI 수치 중 하나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항은 수정한다.

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의 초기문항은 내용타당도 수치를 산출하여 문항을 선정하였고, 도출된 문항의 사전 검사 후 문항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상담에서의 영아기 부모양육요인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은 KMO측도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 후,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문항내적일치도(Cronbach's α)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상담에서의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 구성요인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 척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아동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부모상담에서 부모양육역량 객관적 도구의 필요성 및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을 개념화하고자 개방형, 반구조화 질문을 통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상담시 부모양육역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객관화된 도구로는 부모양육태도검사(PAT) 10명, 아동행동 평가 척도(Korea-Child Behavior Checklist:K-CBCL), 부모자녀상호작용검사(Marshack Interaction Method:MIM), 성격유형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각각 1명, 적절한 도구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7명이었다. 부모상담 시 부모양육역량 점검이 필요한 자녀 연령에 대한 응답으로 만12개월~만36개월 영아기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부모양육역량 중 부모상담 시 필요한 부모양육역량의 구인요소로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 20명, 부모상호작용 20명, 부모의 양육효능감 19명, 부모양육태도 19명, 부모의 정서적 자기 돌봄 능력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전문가 조사 및 선행연구(김지현, 2018; 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정계숙·김정혜·김미정, 2003; Brian, Laurie, Melissa et al, 2014; 김명하, 2013; 박현숙·구현영 2010; Herman, 1990)를 토대로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소와 초기문항을 개발하였다. 현장에서 필요성을 제시하는 만12개월~만36개월 영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부모양육역량 중 상담장면에서 필요한 상호작

용 양육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6〉 전문가 인식조사 내용

내용		N(%)
부모상담시 부모양육역량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	부모양육태도검사(PAT)	10(50)
	아동행동 평가 척도(K-CBCL)	1(5)
	부모자녀상호작용검사(MIM)	1(5)
	성격유형검사 (MBTI)	1(5)
	적절한 객관적 검사가 없다	7(35)
계		20(100)
부모상담시 부모양육역량 점검이 필요한 자녀연령 (복수응답)	만0개월~만12개월 이하	10(50)
	만12개월~만36개월 이하	18(90)
	만3세~만5세	14(70)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부모양육역량 요인 중 부모상담시 중요한 부모양육역량요인 (복수응답)	자녀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20(100)
	부모의 상호작용	20(100)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체력	7(35)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능력	6(30)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는 일상생활 지원 능력	8(40)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관계	10(50)
	부모의 양육효능감	19(95)
	부모양육태도	19(95)
	부모의 인지적 능력	13(65)
	학습지원능력	5(25)
	부모의 정서적 자기돌봄능력	16(80)
	양육관련 접근성	7(35)
	양육관련 정보 활용성	6(30)
	양육관련 정보 충분성	7(35)
	양육지원정책 인지 및 활용	5(25)

부모상담에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의 조작적 정의는 〈표 7〉과 같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상호작용 양육역량'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부모양육역량 요인인 상호작용 양육역량(Herman, 1990), 훈육(박현숙·구현모, 2010), 민주적양육태도(정계숙·김정혜·김미정, 2003; 김지현, 2018)의 내용과 전문가조사를 토대로 보고된 부모상호작용, 양육태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영아기 부모상담에서 가장 많은 솔루션은 놀이참여, 자녀와의 애착 증진을 위한 소통으로(박소영·구본권,

2014), 부모상담에서 중요한 부모양육역량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아동발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양육에 대한 이해, 자녀의 요구 및 한계설정, 기본생활 습관 등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녀이해 능력인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인지적 역량’(박현숙·구현영, 2010; Brian, Laurie, Melissa et al., 2014; 정계숙·김정혜·김미정, 2003; 김지현, 2018)이다. 실제적으로 영아기 부모상담에서도 자녀의 식습관, 발달과정의 지연 등의 상담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박소영·구본권, 2014; 박근주·조경옥·노성향 외, 2015) 영아기 부모상담에서 중요한 양육역량으로 구성된다.

〈표 7〉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 구성요인의 조작적 정의

구성요인	조작적 정의
상호작용 양육역량	자녀의 의도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따듯하고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행동.
인지적 역량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아동발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양육에 대한 이해, 식습관을 포함한 기본생활 습관 등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녀이해 능력.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지식과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정서적 역량	스트레스 대처능력, 감정조절, 자기인식, 자기주도 문제해결, 자기 강점 개발, 지속적 자기 성찰 등 부모 개인 행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서적 건강을 유지해가는 능력.

세 번째 구성요소는 양육효능감이다(정계숙·김정혜·김미정·2003; 박현숙·구현영, 2010; 김지현, 2018).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신숙재, 1997)으로 양육에 대한 인식에서 나아가 실행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 영아기 부모들은 인식능력은 높지만 실행적인 어려움으로 부모상담을 요구하기에(장혜진·윤은주, 2014)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으로 구성된다. 네 번째, 부모의 심리. 정서적 특성인 ‘정서적 역량’이다(김명하, 2013; Brian, Laurie, Melissa et al., 2014). 부모의 정서적 역량은 부모 자신과 행복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한 심리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고 발달시켜가는 역량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 감정조절, 자기인식, 자기주도 문제해결, 자기 강점 개발, 지속적 자기 성찰의 내용이 포함된다(김명하, 2013; Brian, Laurie, Melissa et al., 2014).

2. 문항개발 결과

가. 80개 초기문항에 대한 1차 예비조사 결과

전문가 조사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모상담에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자기보고식 척도의 구성요소와 초기문항을 개발하였다. 부모양육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만12개월~만36개월 이하의 영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상호작용 양육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문항을 구성하여 총 111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111개의 초기문항에 대해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였다. 1차 내용타당도를 통해 CVI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3문항을 삭제, 의미와 연령의 제약이 되는 문항 17문항을 삭제하였고, 정서적 역량의 부모-자녀 관계를 통한 정서적 통찰의 의미를 포함한 6문항을 추가하여 87문항으로 수정하였고, 2차 내용 타당도를 통해 의미, 요인의 불명확한 내용은 수정 및 삭제하여 총 80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추출된 80문항을 만12개월~만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영아기 부모 22인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문항 평균이 3점 이하, 문항 응답분포, 표준편차 .8 이하 문항은 삭제하였다(탁진국, 2007). 이 과정을 거쳐 추출된 69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는 <표 8>과 같다.

<표 8> 사전검사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

(80문항 $N=22$, 69문항 $N=371$)

	<i>M</i>	<i>SD</i>	<i>Cronbach's α</i>
80문항	3.53	.35	.88
69문항	3.44	.29	.92

나. 69개 초기문항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예비 측정 문항 설문지를 구성하여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을 탐색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12개월~36개월 이하 영아기 부모 371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 및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제된 문항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KMO,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통해 상관행렬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KMO 통계치 .933으로 1에 근접하기에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

6053.29(df=666, $p < .001$)는 유의미하므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척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므로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CA),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베리맥스를 채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이 개수로 적합하다는 법칙(Kaiser-rule)을 따르는 것이 요인의 수를 정할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기준과(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타당도 검증 및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요인별로 3개 이상 문항이 묶이지 않는 문항과 .40이하인 문항과 추출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50 이하인 문항과 1.0 이하 차이의 요인 적재량을 통해 다수의 요인과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을 순차적으로 제외시켜나갔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이 구성되었고 초기의 가설적 요인 개념에 기초한 문항들이 적절히 추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 구성의 결과 및 각 요인별 특성,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요인구조 및 문항 구성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행렬은 <표 9>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4개의 요인은 약 54.66%의 설명력으로 부모양육역량을 설명하고 있다. 요인 1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고유값 10.94, 설명량 33.14로 본 척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 문항 별 요인 적재량은 .57-.74, 공통요인계수는 .46-.63사이에 분포하며 요인 1의 문항들은 요인적재량 1.0 이하의 차이로 상관을 보이지 않아, 10개의 모든 문항이 요인 1을 적절히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 1은 영아기 부모가 자녀에게 민감하고 애정적 태도로 반응하는 상호작용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호작용 양육역량'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고유값 2.87, 설명량 8.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53-.75, 공통요인계수는 .32-.63사이에 분포하며 요인 2 문항들은 요인적재량 1.0 이하의 차이로 상관을 보이지 않아, 10개의 모든 문항이 요인 2를 적절히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 2는 아동발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양육에 대한 이해, 자녀의 요구 및 한계설정, 식습관을 포함한 기본생활 습관 등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녀이해 능력문항들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지적 역량'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고유값 2.32, 설명량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55-.76, 공통요인계수는 .46-.72사이에 분포하며 요인 3 문항들은 요인적재량 1.0 이하의 차이로 상관을 보이지 않아, 6개 모든 문항이 요인 3을 적절히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 3은 부모가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문항들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육효능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고유값 1.90, 설명량 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

의 요인 적재량은 .45-.73, 공통요인계수는 .36-.59사이에 분포하며 요인 4문항들은 다른 요인과는 요인적재량 1.0 이하의 차이로 상관을 보이지 않아, 6개 모든 문항이 요인 4를 적절히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요인 4는 부모 개인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문항들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서적 역량’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9〉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		요인적재량			h^2
요인 1: 상호작용 양육역량	13. 나는 자녀에게 “너는 소중하다, 특별하다.”와 같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표현을 한다.	.60	.36	.15	-.08	.52
	15. 나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해해주며, 의견을 존중한다.	.74	.10	.13	.22	.63
	16. 나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자녀와 이야기를 나눈다.	.70	.19	.29	.14	.63
	17. 나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71	.22	.06	.14	.58
	19. 나는 아무리 바빠도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69	.25	.07	.25	.61
	20. 나는 자녀를 자주 안아주고 좋아한다는 표현도 자주 한다.	.71	.15	.04	.27	.60
	21. 나는 자녀의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은 삼간다.	.73	.09	.19	.19	.61
	22. 나는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준다.	.57	.28	.12	.20	.46
	23. 나는 자녀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간에 가로막지 않고 자녀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준다.	.70	.04	.18	.23	.57
	24. 나는 자녀가 나와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70	.15	.23	-.00	.57
요인 2: 인지적 역량	2. 나는 어떤 장난감이 자녀의 연령에 적절한지 알고 있다.	.10	.66	.22	.15	.52
	3. 나는 자녀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15	.65	.28	.07	.53
	4. 나는 자녀의 소근육 발달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예: 손가락 사용, 블록 쌓기 등)을 알고 있다.	.16	.75	.06	.16	.63
	5. 나는 자녀의 대근육 발달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예: 공놀이, 계단 오르기 등)을 알고 있다.	.16	.73	.04	.18	.61
	6. 나는 자녀의 일반적인 식단과 식사방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있다.	.10	.67	.18	.04	.50
	7. 나는 자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06	.60	.13	.13	.40
	8. 나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와 행동을 이해한다.	.15	.69	.16	.06	.53
	9. 나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4	.66	.38	.10	.61
	10. 나는 자녀의 발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24	.55	.05	.03	.37
	12. 지역사회에서 나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사람들(예: 또래 아이 부모들, 보육지원서비스, 어린이집, 치료실,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찾을 수 있다.	.18	.53	-.09	.04	.32

구분	문항	요인적재량			h^2	
요인3 양육효능감	44. 나는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21	.16	.76	.06	.66
	4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 역할을 보여주는 관찰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14	.12	.75	.08	.61
	46.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예: 아이의 짜증, 아이와 규칙변경 등)를 잘 다룬다.	.22	.21	.64	.24	.57
	47.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0	.34	.67	.11	.60
	48. 나는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21	.07	.76	.28	.72
요인4: 정서적역량	50. 나는 부모로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21	.15	.55	.29	.46
	58. 부모로서 겪게 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나간다.	.20	.07	.27	.64	.54
	59. 나는 화가 나면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본다.	.17	.30	-.05	.57	.45
	61.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이다.	.14	.10	.25	.65	.52
	62. 나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23	.00	.11	.72	.59
	65. 나는 잘 안되리라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적어도 무엇인가를 해보기로 노력한다.	.10	.17	.18	.61	.45
	66. 나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어느 정도 참고 견딜 수 있다.	.12	.03	.04	.73	.56
	고유치	10.93	2.87	2.32	1.90	
	설명변량	33.13	8.71	7.04	5.76	
	누적변량	33.13	41.8	48.89	54.66	

N=37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도출된 4개의 요인들 간의 관계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 1 상호작용 양육역량	1			
요인 2 인지적 역량	.50***	1		
요인 3 양육효능감	.51***	.48***	1	
요인 4 정서적 역량	.49***	.37***	.47***	1
전체	.83***	.80***	.75***	.69***

*** $p < .001$

각각의 요인은 상호간에 .37-.51 사이의 정적 상관은 유의하였으며($p < .001$), 네 요인은 전체 부모양육역량에 대해 .69-.83의 높은 정적 상관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상호작용 양육

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의 요인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부모상담에서의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개념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나) 요인별 신뢰도 검증 결과

〈표 11〉 요인별 신뢰도 검증결과

		<i>M</i>	<i>SD</i>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i>Cronbach's α</i>
상호 작용 양육 역량	문항13	4.11	.84	.54	.94
	문항15	3.89	.74	.59	.94
	문항16	3.88	.72	.65	.94
	문항17	4.04	.69	.58	.94
	문항19	3.98	.66	.63	.94
	문항20	3.70	.77	.58	.94
	문항21	3.82	.82	.59	.94
	문항22	3.90	.69	.58	.94
	문항23	3.72	.78	.56	.94
	문항24	4.08	.74	.55	.94
	1 요인	3.91	.56	<i>Cronbach's α</i> = .94	
인지적 역량	문항2	3.60	.82	.55	.94
	문항3	3.47	.84	.57	.94
	문항4	3.87	.77	.58	.94
	문항5	3.86	.82	.57	.94
	문항6	3.50	.91	.49	.94
	문항7	3.64	.78	.45	.94
	문항8	3.64	.77	.54	.94
	문항9	3.29	.82	.63	.94
	문항10	3.56	.89	.46	.94
	문항12	3.75	.92	.35	.94
	2 요인	3.62	.58	<i>Cronbach's α</i> = .94	
양육 효능감	문항43	2.99	.79	.54	.94
	문항45	2.98	.79	.49	.94
	문항46	3.09	.74	.60	.94
	문항47	3.28	.71	.56	.94
	문항48	2.90	.72	.59	.94
	문항50	3.17	.74	.54	.94
	3 요인	3.07	.58	<i>Cronbach's α</i> = .94	
정서적 역량	문항58	3.35	.82	.52	.94
	문항59	3.73	.74	.45	.94
	문항61	3.57	.78	.49	.94

	<i>M</i>	<i>SD</i>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i>Cronbach's α</i>
문항63	3.47	.85	.45	.94
문항65	3.74	.72	.47	.94
문항66	3.77	.72	.39	.94
4 요인	3.61	.55	<i>Cronbach's α</i> = .94	
부모양육역량 전체	3.60	.44	<i>Cronbach's α</i> = .93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4개의 하위 요인과 최종 문항의 결정이 통계적으로도 신뢰할 만한지 검증하기 위해, 문항내적일치도계수인 Cronbach's α 를 검증하였다. 부모상담에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척도의 신뢰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1>과 같다. 전체 척도에 대한 평균은 3.60($SD = .44$), Cronbach's α 는 .93으로 높은 수준이다.

요인1 상호작용 양육역량의 소척도의 문항별 평균은 3.70-4.11($SD = .66-.84$), Cronbach's α 는 .9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문항과 전체 소척도 간에는 모든 문항이 .54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각 문항을 삭제할 경우 Cronbach's α 는 모두 .94로 10개 문항은 적절하게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2 인지적 역량의 소척도의 문항별 평균은 3.29-3.87($SD = .77-.92$), Cronbach's α 는 .9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문항과 전체 소척도 간에는 모든 문항이 .45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각 문항을 삭제할 경우 Cronbach's α 는 모두 .94로 10개 문항은 적절하게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3 양육효능감 소척도의 문항별 평균은 2.90-3.28($SD = .71-.79$), Cronbach's α 는 .9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문항과 전체 소척도 간에는 모든 문항이 .49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각 문항을 삭제할 경우 Cronbach's α 는 모두 .94로 6개 문항은 적절하게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4 정서적 역량 소척도의 문항별 평균은 3.35-3.77($SD = .72-.85$), Cronbach's α 는 .9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문항과 전체 소척도 간에는 모든 문항이 .39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각 문항을 삭제할 경우 Cronbach's α 는 모두 .94로 6개 문항은 적절하게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의 구성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측정할 척도를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객관화 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과정 및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는 가설적 구성개념 설정, 측정문항 제작, 구성된 척도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2차례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한 검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헌 고찰 및 전문가조사를 통해 총 4개의 요인을 잠정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후 각 요인을 설명하는 문항들을 제작하여 2차례의 내용타당도 검정을 통해 80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36개월 이하의 영아기 부모 22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 예비척도 69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척도를 사용하여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적절한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12개 어린이집 만1세, 만2세반 부모에게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371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 척도는 4개의 하위 요인 상호작용 양육역량을 측정하는 10문항, 인지적 역량을 측정하는 10문항,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6문항, 정서적 역량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과 문항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의 구성개념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이론적 개념과 함께 전문가 조사를 통한 경험적 개념들이 요인 구성에 반영되어 상호작용 양육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의 4개 요인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구인된 개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작용 양육역량'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양육방법, 양육태도의 양육역량 특성을 반영한다(Herman, 1990; 박현숙·구현영, 2010; 정계숙·김정혜·김미정, 2003). 영아기 부모상담에서 가장 많이 제공된 솔루션은 놀이참여, 애착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양육태도로(박소영·구본권, 2014) 부모상담에서 영아기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양육역량으로 보여진다. '인지적 역량'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자녀발달특성에 대한 지식, 양육기술, 자녀양육을 위한 이해의 양육역량의 특성을 반영한다(정계숙·김정혜·김미정, 2003; 박현숙·구현영, 2010; Brian, Laurie, Melissa et al., 2014; 김지현, 2018). 영아기 상담을 의뢰하는 부분 중 많은 영역이 식습관과 자녀의 발달과정, 대소변훈련 등의 요소이다(박소영·구본권, 2014). 또한 영아교사를 위한 부모상담의 교육서적에서도 영아의 발달과정에 따른 행동적 특성과 이에 따른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박근주·조경옥·노성향 외, 2015). 이는 초기 부모이기에 자녀의 발달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요한 시기로 부모상담의 목적 중 교육적 목적으로 전문가 조언과 정보제공이 필요하기에 영아기 부모상담의 필요한 양육역량이다. '양육효능감'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지식과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육역량의 요인을 반영한다(정계숙·김정혜·

김미정, 2003; 박현숙·구현영, 2010; 김지현, 2018).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윤혜영, 2018).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 중 인식영역인 '인지적 역량'에서 나아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영아기 부모가 자신이 인식한 부분을 실행하는 능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역량'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스트레스 대처능력, 감정조절, 자기인식, 자기주도 문제해결, 자기 강점 개발, 지속적 자기 성찰의 내용이 포함하는 양육역량 요인을 반영한다(김명하, 2013; Brian, Laurie, Melissa et al., 2014). 이는 부모상담 중 치료적 목적인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 및 양육스트레스 등 심리적 접근으로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으로 볼 수 있다. 즉, 선행연구에 나타난 부모양육역량의 다양한 측면과 특성 중 영아기 부모상담장면에서 요구되는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을 포괄적인 항목으로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부모양육역량의 구성요인 및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영아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추출된 문항을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하였지만, 확인적 요인분석 및 수렴, 변별 타당도 검증, 준거 관련한 상관정도를 측정하는 타당화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상담 임상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부모 외에도 상담자 및 임상심리사가 평가를 통해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평가자용 부모양육역량 척도가 개발된다면 더 객관화된 평가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영아기 부모상담을 위한 객관적인 부모양육역량의 측정 도구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영아기 부모의 양육역량을 증진하고, 영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2016년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아기 부모들은 부모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기에 부모들 스스로 부모교육 기회의 확대 및 의무화를 요구하였다(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그러나 영아기 부모에게 필요한 부모양육역량은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이명순·고여훈, 2016).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 부모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척도를 개발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상담목표 및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양육역량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상담에서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평가척도의 최종 목적은 상담에 필요한 부모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상담목표를 설정하여 개인에게 맞는 양육역량증진을 위한 상담을 통해 양육의 효율성 및 영아들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이루는 것이다. 산후기간 동안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양육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모양육역량이 증진된 대만에서의 연구(Chung et al, 2018)를 통해서 예방적 교육의 중요성이 시사되듯 초기 영아기 부모양육역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기 부모상담 장면에서 요구되는 부모의 양육역량의 객관적 이해를 돕고, 개인에게 맞는 상담의 목적에 따라 '상호작용 양육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 요인별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정책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클로버 부모교육' 입문과정에서는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 증진을 도모하여 양육효능감 향상을 도모하며,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에 대해 교육 중이며, 아이사랑플래너상담을 통해 영유아 문제행동, 가정 내 문제, 양육스트레스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n.d.). 이러한 과정에서도 부모 개인의 양육역량을 평가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아기 시기 부모양육역량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부모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부모마다 갖고 있는 양육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성취감 있고 효율적인 양육역량을 키워갈 것으로 시사된다.

참고문헌

- 강은주·김광웅(2010). 놀이치료에서 부모의 상담욕구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 13(4), 59-74.
- 강정원·전선영(2000). 인터넷을 이용한 영유아기 자녀교육 상담 내용 분석 연구. 영유아교육연구, 3(1), 39-60.
-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권혜진·전숙영(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79-96.
- 기채영(2006). 놀이치료에서 부모상담의 치료성과 요인 및 과정에 대한 질적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2), 41-58.
- 김명하(201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양육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효

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빛나(2008). 탈중심화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과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1998). 아버지와 영아의 상호작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희·고태순·김경원(2012). 부모의 아동이해와 자녀양육. 이담북스.

김정미(2018). PCT부모양육특성검사 전문가지침서 대상 만1-6세 아동. 인사이트.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지수(2017). 가정방문 양육코칭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영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지현(2018). 유아기 부모의 부모역량 인식과 실행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근주·조경옥·노성향·최수경·강양자(2015). 영아교사를 위한 부모상담. 양서원

박선정(2014).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위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아동간호학회, 20(1), 39-48.

박소영·구본권(2014). 온라인상에서의 영유아기 육아 상담에 나타난 주요 주제와 솔루션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14(4), 241-262.

박현숙·구현영(2010).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9(4), 411-419.

배기조(2001). 취학전 아동의 개인 및 가족적 특성이 마음의 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배문주(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하나(2011). 영아기 자녀와 아버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효미(2016). 영유아기 부모성찰 척도의 개발과 관련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리상담센터 헬로스마일(n.d.). 검사프로그램. www.hellosmile.kr에서 2018년 8월 24일 인출함.

원경미(2016). 부모역량 강화 집단 성인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월성종합사회복지관(n.d.). 사업안내 심리상담센터. <http://www.ws1004.or.kr>에서 2018년 8월 24일 인출함.

- 유미숙(1997). 놀이치료 이론과 실제. 상조사.
- 유미숙(2009). 숙련 놀이치료자의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4). 19-42.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수영(2002).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영(2008). 부모 리더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희영(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역량 변인들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란(2013). 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유아의 자기주도 학습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고여훈(2016). 영아부모 양육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부모역량 및 요구분석. 아동교육, 20(4). 435-456.
- 이영·이미란·홍희영·한성희·민성혜·박신진·유영미·신혜원·민현숙·정지나·문영경(2015). 영아 발달. 학지사.
- 이영애(2001). 놀이를 통한 아동 진단과 평가도구에 관한 고찰, 놀이치료연구, 4(2), 27-40.
- 이은경(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예슬·한유진(2018). 놀이치료에서 놀이평가척도 문항개발 예비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2). 1-18.
- 장혜진·이정림·윤은주·김해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장혜진·윤은주(2014).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295-317.
- 정계숙·김정혜·김미정(2003).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9, 117-140.
- 정계숙·최은실(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개발 연구. 열린유아 교육연구, 18(3). 225-257.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n.d.). 가정양육지원. <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2018년 8월 24일 인출함.
- 조인경(2004). 어머니의 인식, 양육효능감, 유아의 인지능력, 공유하는 정서와 어머니의 유관조절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탁진국(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 방법의 이해. 학지사
- 황주연 (2011). 자기성찰 척도개발 및 자기관과 자기성찰, 안녕감 간의 경로모형 검증.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n.d.). 연령별 추천검사 www.hugmom.co.kr에서 2018년 8월 24일 인출함.
- Bandura, A.(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5, 307-337.
- Brian D. Johnson, Laurie D. Berdahl, Melissa Horne, Emily A. Richter & Meaggan Walters.(2014). A Parenting Competency Model. *Parenting*, 14(2). 92-120.
- Deborah Killough McGuire, Donald E. McGuire(2008). Linking parents to play therapy : a practical guide with applications, interventions, and case studies. 김광웅, 강은주, 진화숙 역(2008).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시그마프레스.
- Dee C.Ray(2011). Advanced Play Therapy. 이은아김, 민성원 역(2016). 고급놀이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Fen-Fang Chung, Gwo-Hwa Wan, Su-Chen Kuo, Kuan-Chia Lin, Hsueh-Erh Liu(2018). Mother--infant interaction quality and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at six months postpartum for first-time mothers in Taiwan: a multiple time series design.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 Goldstein, J., Freud, A., & Solnit, A. (1973). *Beyo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ew York : Free Press.
- Herman, S. P.(1990). Special issues in child custody evalu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6), 969-974.
- Lynn, M. R. (1986).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35(6), 382-386.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 Woods, K. (2011). Examining the effect of medical risk, parental stress, and self-efficacy on parent behaviors and home environment of prematur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Nebraska, USA.

-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8월 29일 / 게재 승인: 9월 18일
- 교신저자 : 한유진,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yjhan@mju.ac.kr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Competence Self-Report Scale for Parents of Infants

Kyungeun Kim and Youjin 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arenting competence evaluation scale for counseling for parents of infants. It examines the factors of parenting competence for counseling for parents with infants to devise a set of scale question items, which provides basic data to test its validity.

Based on precedent studies and the survey of expert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parent counseling, parent competence factors were determined. Afterwards, 111 question items were devised. Based on 69 items after the content validity testing and the primary preliminary study, the secondary preliminary study was conducted with 371 parents of infants. The collected data was tes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coefficient. The findings led to four sub-factors including “interactive parenting competency,” “cognitive competency,” “parenting efficacy,” and “emotional competency” as well as 32 question items. The findings will serve as basic data to validate a parenting competence scale for counseling for parents of infants and are expected to examine and promote the parenting competence.

Keywords: parents of infants, parent counseling, parenting competence, self-report scale